

도교의 종교적 실천으로서 “돌봄(care)”과 사상적 배경- 홍콩 도교를 중심으로*

고 은 강/고 정 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참고문헌 |
| III. 홍콩 도교 실천에서 “돌봄”의 내용 | Abstract |
| IV. 보제권선(普濟勸善)의 사상적 토대 | |

Key words(중심용어): 돌봄(Care), 중국 도교 (Chinese Daoism),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 지역학(Regional Studies), 도교 실천(Daoist Practice)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유교, 불교와 더불어 동아시아 삼대 전통 종교의 하나인 도교(道敎)의 종교적 실천(religious practice)에 나타난 “돌봄(care)”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사상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도교는 양생술, 내단학 등 건강과 관련된 실천이 종교적 전통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관찰되는 도교의 종교적 실천을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돌봄”은 간호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이자 사회복지학, 가정학 등 여러 학문에서 주요 개념 중 하나로서 연구되고 있다. 도교가 주요 종교 중 하나로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는 중국 홍콩에서는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서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은 건강과 관련된 양생술, 내단학 등 전통적인 도교의 “돌봄”과는 내용이 다르다. 본 논문은 현재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사상적 토대를 여전히 도교의 종교적 실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도교 경전에서 찾는다. 홍콩 도교 의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경전의 하나인 『여조무극보참(呂祖無極寶懺)』의 내용을 분석하여, 홍콩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 나타난 “돌봄”의 보제권선(普濟勸善)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27-B00416)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의 개념을 거론하지 않아도 건강이란 단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건강이 전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이래, 돌봄(care)의 개념 또한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종교와 돌봄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종교든 돌봄은 종교적 실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교 및 불교와 더불어 동아시아 삼대 전통 종교로 불리는 도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도교는 유교 및 불교와 같은 형식과 규모의 제도화된 종교 (institutionalized religion)로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용휘 2008). 따라서 유교 및 불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럼에도 건강이라는 개념과 돌봄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국한하여 본다면 도교만큼 건강과 돌봄이 종교적 실천에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도 흔하지 않다. 도교 연구에서 “건강”과 “돌봄”은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다 (김용태 2010; 임태현 2008; Kohn 2006). 그러나 도교 연구의 주류가 그러하듯, “건강” 및 “돌봄”과 관련된 도교 연구 역시 문헌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연구 주제 면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실천되고 있는 도교에 초점을 맞추어 도교의 지역적 실천 양상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 실천되고 있는 도교를 관찰하고 도교의 실천에 나타난 “돌봄”의 사상적 토대를 도교의 경전에서 찾고자 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도교 연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문헌 연구를 통한 철학과 역사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실천 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편에 속한다. 도교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야인 도교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도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현재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연구 주제인 “건강”과 “돌봄”을 동아시아 종교 연구에 적용하여 연구 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 논문은 주로 인문학의 연구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도교 연구를 학제 간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학 및 사회복지학의 주요 연구 주제인 “돌봄”이라는 주제가 도교의 지역적 실천 양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지역학 연구를 시도하였다. 동일한 연구 지역, 동일한 연구 대상의 테두리 안에서 실천(practice)과 사상(idea)을 접목하는 본 논문의 접근은 도교 연구 전통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시사점이 있다. 리비아 콘이 지적한 대로, 도교 연구에는 도가 철학(Daoist Philosophy)과 도교(Daoist religion)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 전통에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 (Kohn 2000).

중국에서 도교는 교단의 틀이 갖춰진 제도화된 종교 중 하나다. 불교와 더불어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로서 지금도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교는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와는 달리 중국에서 시작된 토착 종교로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 중국 사회에서 국가의 통제 하에 교단 조직이 통제되고, 문화 혁명 기간에는 사원에서 도사가 추방되고 사원이 폐쇄되는 등 종교적 탄압도 있었으나, 최근 중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재정립되고 있다. 제도화된 종교 이외에도 민간 종교(popular religion)의 영역에서 도교¹⁾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다 (Dean 1988; Lagerwey 2004).

제도화된 종교로서 중국 도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중국 도교는 진진교(全眞敎)와 정일교(正一敎)로 분류된다²⁾. 진진교는 금왕조 시기 왕중양(1112-1169)이 개창하였다고 전해지며, 진진도(全眞道)라고도 한다. 도교 최대 종파이다. 산서성 순양궁(純陽宮), 섬서성 중양궁(重陽宮), 북경 백운관(白雲觀)이 삼대 궁관으로 불린다. 정일교는 천사교(天師敎)라고도 하는데 한 왕조 시기 장도릉³⁾이 창시했다고 전해진다. (張樾 1999; Yao 2000)

Ⅲ. 홍콩 도교 실천에서 “돌봄”의 내용

홍콩 구룡 지역에 위치한 윙타이신(黃大仙)⁴⁾은 홍콩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교 사원 중 하나다. 사원의 공식 명칭은 식색위엔(齋色園)이지만 일반적으로 창건자의 이름을 따서 윙타이신이라 불린다. 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며 지하철역 윙타이신에 이어져 있다. 1921년 창건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콩 도교 연구의 중요한 연구지가 되고 있다. 윙타이신을 비롯한 홍콩의 도교 사원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실천을 살펴보면 홍콩 도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홍콩의 도교 사원은 종교적 역할의 핵심인 종교 행사를 주관한다. 홍콩 도교의 종교 의식은 도사들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행해진다. 사원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납골당의 운영이다. 도교식으로 장례식을 주관하고 위패를 모신다. 윙타이신이나 평잉신쿤과 같은 큰 규모의 사원은 부속 학교⁵⁾를 운영한다. 그 외에도 평잉신쿤의 경우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도교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한 여러 문화 행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홍콩 도교 사원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윙타

- 1) 중국 민간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보다 융합(syncretism)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도교’라 이름 붙여진 종교 의식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맥락을 떠나서, 도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Lagerwey 1987 참조).
- 2) 도교의 분파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의식 음악의 측면에서 보면 북부를 대표하는 진진교 의식, 남부를 대표하는 정일교 의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張樾 1999:530).
- 3) 신격화된 장도릉과 정이교에 관하여 Cheng 1995:111-126 참조. 사료에 입각하여 장도릉과 정이교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Liu 2006
- 4) 현지어인 광둥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
- 5) 식색위엔 부속학교는 호랍중학(可立中學)이라 불리는 중학교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있다.

이신은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윈타이신의 종지(宗旨)는 보제권선(普濟勸善) 즉 “널리 세상을 구제하고 선을 즐겨 행한다”이다. 이에 걸맞게 1965년 사회복지법인⁶⁾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윈타이신 사원에 부속된 클리닉은 서양식 의료 서비스와 중의학 서비스 및 치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한다. 도교 사원은 전통적으로 한의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홍콩의 주요 도교 사원에는 부속 클리닉이 있고 대개 무료 진료를 행한다. 다른 도교 사원인 칭충쿤의 경우는 도사가 직접 행하는 기(氣) 마사지를 제공한다. 다른 사원에 비해 타이신의 부속 클리닉은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윈타이신 사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의료 및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별도의 건물이 있다. 그 곳에서는 홍콩이공대학과 협력 하에 검안을 하고 안경을 맞추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윈타이신 사원에 부속된 클리닉은 영리 목적이 아닌 자선 기관으로서 한의학 서비스(中醫服務⁷⁾), 서양의학 서비스(西醫服務), 치과 서비스(牙醫服務)로 나뉜다. 한의학 서비스는 윈타이신 사원이 설립된 직후인 1924년부터 한약을 지어주는 약국으로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의학의 전 분야에 걸친 진료 및 조제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윈타이신 부설 노인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하고 있다. 서양의학 서비스는 1980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는 사원에서 조금 떨어진 의료 및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별도의 건물에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치과 서비스 역시 서양의학 서비스와 같은 건물에서 1999년 이래 제공되고 있다. 치과의 전 분야를 진료하며 60세 이상 노인에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식위엔(齋食園)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윈타이신 사원 주변뿐만 아니라 홍콩 전역에 흩어져 있다. 홍콩 신계(新界) 지역의 양로원⁸⁾이 그 중 하나다. 그 외에도 구룡 몽콕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음악 감상, 정원돌보기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 검진 서비스 및 간단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룡 삼소이포 지역의 노인복지 센터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식식위엔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룡 삼소이포 지역의 노인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노인 스스로가 자기 돌봄(self-care)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은 식사 제공, 목욕 서비스, 이발 서비스, 세탁, 물품 구매 등이다. 노인 스스로가 자기 돌봄(self-care)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은 다양하다. 사교 모임을 주선하고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을 포함한 자료실을 운영하여 노인 스스로가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도서 및 자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慈善社團法人

7) 服務는 “서비스”를 옮긴 말이다.

8) 護理安老院. 護理는 “돌봄” 즉 care를 옮긴 말이다.

IV. 보제권선(普濟勸善)의 사상적 토대

본 논문은 현재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사상적 토대를 여전히 도교의 종교적 실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도교 경전에서 찾고자 한다. 왕타이신, 평잉신군, 칭충군 등 홍콩의 도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의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경전의 하나인 『여조무극보참(呂祖無極寶懺)』의 내용을 분석하여, 홍콩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 나타난 “돌봄”의 보제권선(普濟勸善)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경전에 나타난 사상(idea)이 종교적 실천(practice)에 직접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적 실천으로서 “돌봄”을 행하는 주체와 종교의 경전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밝혔듯, 도교 연구에는 철학으로서의 도교와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도교를 분리하는 전통이 여전히 견고하다. 따라서 종교적 실천을 도교 사상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러한 시도가 자리 잡지 못한 까닭에 종교적 실천과 사상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자칫 해석의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석의 비약을 경계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와 가장 밀접한 종교 텍스트에 주목하였다. 홍콩 도교에서 종교적 실천으로서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적 실천으로서 도교 의식에 참여한다. 홍콩의 도교 의식은 도사들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운율에 맞추어 읽는 가운데 거행된다. 도교 의식에 참여할 때 가장 자주 접하는 경전 중 하나를 분석하여 그 내용으로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1. 홍콩 도교의 종교적 실천에서 『여조무극보참(呂祖無極寶懺)』의 위치

『여조무극보참(呂祖無極寶懺)』은 홍콩 도교 의식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경전 중 하나다. 전진교 순양조사 여동빈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 경의 원래 이름은 『구천대라 옥도사상 여성진군 무극보참(九天大羅玉道師相呂聖眞君無極寶懺)』이다.

『여조무극보참』은 4글자가 한 구를 이루는 부분이 많고, 대개 글자 수가 규칙적이어서 가락에 맞추어 부르기가 쉽다. 발음은 광둥어 발음을 기준으로 읽는다. 가락은 수 차례 들으면 따라 부를 수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음계가 보통이다. 발성을 위해 수 년에 걸친 수련이 필요하다거나 숙련된 도사들만이 부를 수 있는 어려운 곡조가 아니다. 홍콩의 도관에 속한 도사들은 대개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다. 일반 사회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도사로서 도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식을 봉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거의 매 주, 일부는 거의 매일 도관의 크고 작은 의식을 봉행하는 도사들 중에도 대부분 사회인으로서 종교 활동 이외의 생활이 있다.

2. 『여조무극보참』의 사상

경전의 원제목은 앞서 밝혔듯 『구천대라 옥도사상 여성진군 무극보참(九天大羅玉道師相呂聖眞君無極寶懺)』이다⁹⁾. 구천대라(九天大羅)의 구천은 도교의 아홉 개의 하늘을 가리킨다. 태청천(太青天), 청미천(淸微天), 대적천(大赤天), 대청천(大靑天), 태현창천(太玄蒼天), 태현천(太玄天), 대호천(大昊天), 태현도천(太玄都天), 대명천(大明天)으로 신선이 머무는 장소이다. 대라(大羅)는 대라천(大羅天)으로 신선이 거주하는 구천 위에 자리한 하늘이다. 모든 천지만물의 시작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이 머무는 곳이다. 노자가 도교의 신적 존재로 자리 잡은 이래, 노자라는 존재는 신으로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도교의 신들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천존’(天尊)으로 승격되고 만물의 창조, 유지, 소멸을 관장하는 세 명의 천존으로 분화된다. ‘구천대라’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는 의미다. ‘옥도사상’의 ‘옥도’는 원시천존이 머무는 도읍지, ‘사상’은 관직의 이름이다. ‘옥도사상’은 ‘옥도의 사상이라는 관직에 있는’이라는 뜻이다.

‘여성진군’은 순양조사를 가리킨다. 성은 여(呂), 이름(名)은 암(岩), 자(字)는 동빈(洞賓), 호는 순양자(純陽子)이다. 당 덕종 때 포주 영락현(蒲州 永樂縣)에서 태어났다. 다른 도교의 신선들과 마찬가지로 전설이 전해진다. 어머니가 순양조사를 가질 때, 기이한 향이 방안에 가득하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며, 흰 학이 하늘에서 내려와 휘장 속으로 날아들었다 사라졌다고 한다. 태어나자 골격은 금과 같고, 바탕은 옥과 같아 학의 정수리에 원숭이의 등을 하고, 호랑이 용과 같은 몸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스무 살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않다가, 화룡진인(火龍眞人)을 만나 도에 입문하였다. 후에 종리조사(鍾離祖師)를 만나 도를 이루고 천하를 주유하며 중생을 구제하였다. 전진교의 ‘북오조(北五祖)’의 한사람이다. 무극보참의 ‘무극’은 ‘다함이 없는’이라는 뜻이고 ‘참’은 ‘참회의 말’을 가리킨다. 참회하는 의식의 전범이라는 뜻이다. 여조에 대한 미칭(美稱)은 이외에도 ‘순양연정경화부우제군(純陽演正警化孚佑帝君)¹⁰⁾’ 등의 용어로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문맥 내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

『보참』은 ‘계단찬(啓壇讚)’으로 시작한다. 의식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의식은 의식을 봉행하는 도사들이 들어와 향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참』의 ‘계단찬’은 여조의 공덕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樵陽啓化 妙道傳經 玉松印合大緣因 無極度人心 頂禮 師眞 超劫 上瑤京

‘초양계화’의 ‘초양’은 지명이다. 여조가 ‘초양경(樵陽經)’을 저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계화’는 ‘교화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다. ‘옥송’은 여조를 가리킨다. ‘정례’는 존경의 의미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는 것이다. ‘요경’은 신선이 머무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므로, ‘상요경’은 선계로 승천하는 것이다. ‘계단찬’의 내용은 ‘초양으로부터 교화를 시작하신 이래 신묘한 도가 경전으로 전하니 여조의 도는 큰 인연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하고자하는 끝없는 마음에 절을 올립

9) 이하 『보참』이라 칭한다.

10) 원(元) 무종(武宗)이 내린 시호

니다. (그 덕으로) 여조께서는 영겁을 초월하시어 선계에 오르셨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참』에 나타난 주요 사상을 천인감응(天人感應), 참회, 도덕, 권선으로 요약해 보았다. 천인감응은 도교라는 종교의 경전으로서 『보참』의 성격을 규정한다. 도교를 믿는 사람이 『보참』을 읽고 의식에 참가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신과 교감하기 위함이다. 신과 교감하기 위해 인간이 행하여야 하는 일이 참회다. 일상에서 참회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되는 것이 도과 덕이다. 도를 실천하고 덕을 쌓는 수행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므로, 종교의 경전으로서 『보참』은 여타 종교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범적 선행의 중요함 또한 강조하고 있다.

(1) 천인감응

“영통감응천존(靈通感應天尊)”은 중요한 구절이다. 계단찬’에 이어지므로 ‘계단찬’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본 경의 시작 전에 이 구절을 힘차게 세 번 부른다. “영통감응천존”의 ‘천존’은 신선을 높이는 존칭이다. 여기서는 여조를 가리킨다. 원시천존, 즉 노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영통감응천존’은 영이 통하여 여조와 감응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도교 의식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신과 감응하기 위함이다. 도교의 신 중에는 본래 인간이었다가 신선이 된 경우가 많다. 죽어서 도교의 신선으로 숭배되는 일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¹¹⁾. 여조도 생전의 공덕으로 신선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여조와 감응하고자 하는 소망은 생전에 여조처럼 도를 이루어 신선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통’은 여조를 본받기 위해, 나 자신의 영이 소통하여 여조와 감응하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영이 통하는 일이 신과 감응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신성이 통한다는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영이 참된 본성과 통하면 신성과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기진신 무손무극 (守其眞神 毋損毋克)
중령초성 선통지성 (衆靈初成 先通至性)

『보참』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위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 참된 신성을 지켜서 (신성을 해치는 요인들에 의해) 손실되거나 정복당하거나 하지 말라. (인간의) 모든 영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참된 본성¹²⁾과 통했다.’가 된다. 나의 영이 신령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영이 원래 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본성과 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참회이다.

(2) 스스로 도에 귀의한다는 서원으로서의 참회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지심조례 (至心朝禮)”도 “영동감응천존”과 더불어 의식에서 중요하

11) 홍콩 구룡에 위치한 도교 사원 청춘궁에서는 무료로 환자를 돌보는 등 공덕을 쌓은 홍콩의 한의사가 사후 ‘진인(眞人)’의 칭호를 얻고 받들어지고 있다.

12) ‘지성’을 ‘참된 본성’으로 해석한 근거는 龍游·丁常雲 1997:9.

게 여겨지는 구절이다. 이 세 구절은 『보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불려진다. 『보참』에서 ‘지심귀명례’, ‘지심조례’는 참회를 위한 마음가짐을 단적으로 표현한 의식 용어이다. ‘지(至)’를 ‘진(眞)’으로 해석하여 ‘지성’을 참된 본성으로 해석한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본다면, ‘지심’은 참된 마음이다. 참된 본성과 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참회라고 본다면, ‘지심귀명례’는 참된 마음으로 명(命)을 회복하는 것이 참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심귀명례”를 읊고 ‘개참주(開懺咒)’ 즉 참회를 시작하는 경문을 부른다.

乾坤浩蕩 日月虧盈
 三臺¹³⁾上極 元亨利貞¹⁴⁾
 玉都師相 呂聖眞君
 大慈大憫 大惠大仁¹⁵⁾
 善能普度 六道四生
 遇緣卽化 金光耀明
 六丁¹⁶⁾護衛 神將飛臨
 大灾急難 永化爲塵
 蓬萊閨苑 一任嘯吟
 仙宗玄教 至杳至冥
 太虛太極 無幻無形¹⁷⁾
 口口傳道 傳道道存
 存乎至道 神鬼潛奔
 邪魔遠遯 禍滅祥生
 謹能持奉 道業斯成
 乾元亨無極利貞¹⁸⁾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넓은데 일월은 이지러지고 차고, (여조의 도는) 삼태성의 지극히 높은 자리와 같고 지극히 완전하구나. 옥도의 사상이신 여조여, 크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을 베푸시어 모든 인간을 구제하시네. 득도의 인연을 만나서 득도하니 금색 빛이 밝게 비치며 하늘로부터 호위와 장수가 내려오네. 어지러움이 티끌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니 선경에서 마음대로 한가롭게 읊조릴 뿐. 도교의 가르침은 지극히 훌륭하네. 도란 비어있고 고정된 형식이 없다네. (여조의) 도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네. 지극한 도를 보존하니 귀신이 잠잠해지고, 마귀는 멀리 달아나고 재앙은 없어지고 상서로운 기운

13) 삼태성으로 북두성의 위에 자리한 지극히 높은 별자리라는 뜻

14) 주역 건괘 괘사이다. 맥락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보참』 내에서 ‘원형이정’을 해석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養以正一 道配元亨 (기르기를 바르게 하고 한가지로 하여 그 도가 원형과 짝할만하다)’에 비추어 여조의 덕을 칭송하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여조의 덕을 칭송하는 이와 같은 구절은 본문에 여러 번 나온다. 예컨대 ‘大聖大慈 大仁大孝’.

16) ‘육정’은 옥녀(옥녀)를 가리킴. ‘육정호위’는 육정을 호위하는 무사라는 뜻

17) 위의 ‘원형이정’이 그러하듯 도교의 근본 사상이 태허태극을 간단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참』의 ‘개참주’가 의식 가운데 불리는 참회의 기원이라 보고 그 안에서 ‘태허태극 무환무형’을 이해한다면, ‘도의 근본은 비어있고 궁극적이어서 도란 고정된 형체가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이 구절은 앞서 여조를 칭송한 ‘원형이정’의 구절에 내용이 통하는 ‘건’과 ‘무극’을 삽입하여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이 생기니 삼가 여조의 도를 받들면 자신의 도를 닦고 실천하여 성공할 수 있다네. 여조의 완전 무결한 도여’.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보참』의 맥락에서 ‘참회’의 의미는 여조의 도를 본받아서 스스로 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보참』에서 여조를 칭송하는 문구는 다양하게 되풀이된다. 요지는 여조는 본받을 만큼 훌륭한 분이므로 마땅히 본받아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의 성격이 원래 비어있어서 고정된 형식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조의 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원래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한다고 한들 여조가 행한 바로 그 도가 자신의 도가 되지 않는다. 여조가 특정 맥락에서 자신의 도를 행한 것처럼 자신도 자신이 처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여조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참』에 등장하는 참회의 개념에서는 ‘스스로 귀의한다(自歸依)’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여조의 도는 훌륭하며 여조를 본받는 일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여조에게 의지한다고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도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참』은 ‘스스로 귀의’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自歸依道 當願衆生 超脫一切 住最上乘
 自歸依經 當願衆生 深明經藏 神通莫測
 自歸依師 當願衆生 太上授手 成大仙道
 願以懺功德 回向大慈尊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도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발원입니다. 모든 것을 초탈하여 최고의 도에 머물기를. 스스로 경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발원입니다. 경전을 깊이 깨달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통하기를. 스스로 스승님께 귀의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발원입니다. 태상노군의 도움으로 큰 성도를 이루기를. 이러한 참회의 공덕으로써 ‘대자존’ 즉 여조께 돌아가기를 발원합니다.’

이것이 권말에 이어지는 ‘회향찬’의 ‘회향’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回向讚
 玄門道祖 金闕選仙 遊行三界統天人 大法掌雷霆 變理乾坤 劫盡保無侵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조께서는 책임을 맡으셔서 삼계를 두루 거쳐 신선과 인간을 통솔하시고 큰 법을 관장하시니 하늘과 땅의 섭리가 영겁이 다하도록 보존되어 어그러짐이 없으리’.

요컨대, 『보참』의 맥락에서 참회는 단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천과 다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도를 먼저 깨달아 신선이 된, 도에 입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선배에 해당하는 여조를 본받아 도를 실천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자력구제 사상은 불교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불교에서 흔히 쓰이는 의식 용어인 ‘지심귀명례’, ‘귀의’ 등의 용어가 『보참』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종교로서의 불교와 도교는 상호 영향 하에 서로 발전해왔다는 기존의 설을 지지한다고

도 해석할 수 있겠다. 불교와 도교가 단지 의식 용어나 의식의 형식을 서로 본뜨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사상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신선이 되고자하는 종교적 목표와 불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근본적인 면에서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행의 준칙으로서의 도덕

‘계단찬’에 이어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에는 별도로 ‘구천대라 옥도사상 여성진군 도덕진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도덕진경’이라는 명칭은 도교 뿐 아니라 중국 철학의 중요한 개념인 ‘도덕’¹⁹⁾을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본문의 시작은 별칭에 걸맞게 도와 덕의 개념을 해설하는 문구로 시작된다.

天運²⁰⁾初來 與人同得 此之謂道
與人同有 此之謂德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댓구를 이룬 두 구에서 차이를 보이는 ‘득(得)’과 ‘유(有)’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이것이 도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덕이다.’ 다시 말하면, ‘도’의 정의는 아는 것이다. ‘덕’의 정의는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참』의 맥락에서 도와 덕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논증하기는 어렵다. 도와 덕을 본문의 첫머리에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언급이 소략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득(得)’의 여러 사전적 의미 가운데 ‘알다’를 선택하여 해석한 주된 이유는 이어서 ‘도’와 연관되어 언급된 단어들인 ‘달(月)’처럼 훤히 빛남, ‘깨달음(覺)’ 등이기 때문이다. “도의 훌륭한 함은 무궁한 것이지만(道妙無窮)”, 그럼에도 ‘도’란 알기 쉬운 것이다. “도란 숨겨져 있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며, 숨겨진 것, 기이한 것은 도가 아니다(道非幽異 幽異非道)”. “덕은 저절로는 모르며 처음부터 저절로 알고 있는 것은 덕이 아니다(德不自知 自知非德)”. 다시 말해서 노력으로 알게 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상의 구절로 추론해 보면, ‘도’와 ‘덕’의 연결고리는 ‘알다’라는 개념이다. ‘득’도 ‘유’도 결국 ‘알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도’와 ‘덕’의 개념이 다르다. ‘도’란 기이하거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알기 쉬운 것이므로 누구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덕은 인간이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는 않다. ‘덕’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자각되는 것이다. ‘도’와 ‘덕’을 연결해 본다면, ‘도’를 알아서 그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갈고 닦으면(敬修奉持)’ 훌륭한 ‘덕’을 갖추게 되는

19) 노자의 ‘도덕경’과 연결지어 여조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이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에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龍游·丁常雲 1997:5), 현대 중국 도교에서는 노자를 도교의 주요 신으로 신봉하고 도덕경을 노자의 가르침으로 믿어 신성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저작들이 대개 그러하듯 ‘도덕경’도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Van Norden 2007).

20) ‘천운’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참』에서 ‘천운’이 주요 개념어도 아니며, 이 구절 또한 ‘도’와 ‘덕’에 초점을 맞춘 구절이므로 상세히 해석하지 않는다.

것이다. ‘덕’은 누구나 갖추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 “저절로 알다(自知)”의 목적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덕’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덕은 노력으로 알아내야만 하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추론해 본다면, 누구나 자신이 성인이 될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음을 노력으로 알아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도’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에게 ‘덕’이 있음을 증명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참』이 수행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에 근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태어날 때는 어리석은 사람과 성인이 차이가 없기(有身之時 愚聖²¹無分)” 때 문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면 노력의 중요성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차이가 아니라 후천적인 차이이므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도’는 알기 쉬운 것이다. ‘도’가 만약 ‘숨겨진 것’이어서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거나 ‘기이한 것’이어서 보통 사람이 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도’를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도’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수행의 준칙으로서의 ‘도’와 ‘덕’은 개인이 ‘도’를 알아서 그 ‘도’를 꾸준히 실천하여 자신 안에 ‘덕’이 있음을 증명해 내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덕’, 알기 쉬운 ‘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부족하여 실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로, 꾸준히 수행하여 자신 안에 훌륭한 덕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성인이다.

“돌봄”의 개념을 학문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 간호학에서도 수행을 통한 자기 개발(self-cultivation)을 “돌봄”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왓슨(Jean Watson)은 간호의 목표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화를 얻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는 간호사 자신의 수행을 통한 자기 개발이 간호 실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Tomey and Allgood 2006).

(4) 권선

『보참』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선행을 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積德積仁 勸孝於親 勸忠於君 勸信於友 勸恤於貧 勸慈於物 勸和於鄰

‘덕을 쌓고 인을 쌓아라. 부모에 효도하기를 권한다. 임금에 충성하기를 권한다. 벗에게는 신의를 지키기를 권한다.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기를 권한다. 만물은 자비를 베풀기를 권한다. 이웃과는 화목하기를 권한다.’

이러한 내용은 유교의 규범이라 흔히 일컬어지는 내용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지키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보참』 앞부분에 주로 등장하는 철학적인 내용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규범을 해쳐서 법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여 비난

21) ‘성인’이라는 용어가 유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도교의 경전에서도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Kohn 1991 참조).

받는 일은 양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교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 유교, 불교, 도교로 일컬어지는 중국 3대 종교가 사상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발전하여 온 역사적 사실을 볼 때 (Weber 1964; Thompson 1975 참조), 도교 경전에 유교적 가르침이 등장한다고 해도 특별한 일로 볼 수는 없다. 뒤에는 선행을 위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有等聰明者 聰明反誤人

‘충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충명 때문에 도리어 남에게 잘못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을 해치게 된다)’.

有等英雄者 英雄萬古稱, 拔山如折草 無謀反喪身

‘영웅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영웅이라고 만고에 칭송받고 그 힘이 산을 뽑고 초목을 쓰러뜨려도 무모하다면 도리어 스스로를 다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들어서 경계하는 내용은 선행을 권하는 내용에 이어, 종교로서의 도교가 현실에 기반한 일상의 종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청담사상’이라든가 현실도피 사상을 담은 문학작품 등을 도교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전통에 가려서 도교의 현실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종교적 실천으로서 현재 중국문화권에서 신봉되는 도교를 본다면 오히려 현실도피적인 측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는 종교로서의 도교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좀더 분명해 질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왕타이신 사원의 종지인 “보제권선”은 왕타이신에서 도교를 종교로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종교 사상과 무관할 수 없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서, “보제권선”은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학술서에서 논의되는 도교 철학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도교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도교 의식에서 읽고 듣는 도교 경전과 “보제권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상호충돌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도교의 경전으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도덕경』의 일반적인 해석이나 “무위(無爲)” 사상과 “보제권선”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만약 홍콩 도교에서 나타난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돌봄”이 홍콩 도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도교 경전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혹은 거리가 멀다면 적어도 “돌봄”을 연구 주제로 삼아 철학으로서의 도교와 종교로서의 도교의 분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 된다.

『보참』에 나타난 주요 사상인 천인감응(天人感應), 참회, 도덕, 권선은 “널리 세상을 구제하고 선을 즐겨 행한다”는 의미의 “보제권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참』이 종교의 경전이

기 때문에 신성(divinity)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참』의 내용은 도덕과 권선, 즉 “보제권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내용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도덕과 권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보는 “돌봄”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감응, 참회, 도덕, 권선 등 『보참』의 주요 사상이 지향하는 도교의 종교적 목적은 한마디로 살아서 양생(養生)하고 죽어서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신과 감응하기 위해 참회하고, 참회하여 도덕을 실천하는 일은 이러한 종교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양생하고 신선이 되려면 ‘영통감응’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참회하고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참』은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여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세도 중시하고 있다. 여기에 스스로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 “보제권선”의 요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용태(2010). “정조(正祖)의 도교수련관(道敎修鍊觀)에 대한 일고(一考).” 『인문과학』, 제 45권, pp. 171-187.
- 김용휘(2008).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왜 한국에선 도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동양철학연구』, 제 55 권, pp. 137-165.
- 임태현(2008). “중국도교(中國道敎)의 “양생론(養生論)”을 통해 본 “한국선도(韓國仙道)의 “양생론(養生論)” -“인간(人間)(생명(生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국제비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제 8권, pp. 119-145.
- 龍游·丁常雲 (1997). 『呂祖無極寶懺註』. 香港：青松觀.
- 張擘 편(1999). 『中國道敎大辭典』. 臺中：東久企業.
- Cheng Manchao (1995). *The Origin of Chinese Deities*.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 Dean, Kenneth(1988). *Taoism and popular religion in southeast China: History and reviva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h.D Thesis.
- Kohn, Livia (1991). *Taoist Mystical Philosophy*. Albany: SUNY Press.
- Kohn, Livia. ed.(2000). *Daoism Handbook*. Leiden: Brill.
- Kohn, Livia. ed.(2006). *Daoist body cultivation : traditional models and contemporary practices*. Magdalena. NM : Three Pines Press.
- Lagerwey, John (1987). *Taoist Ritual in Chinese Society and History*. New York: Macmillan.
- Lagerwey, John(2004).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Liu Ts'un-yan (2006). "Was Celestial Master Zhang a Historical Figure?" Benjamin Penny (ed.). *Daoism in History*. London: Routledge, pp.189-253.

Tomey AM, Alligood MR.(2006).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St. Louis: Mosby.

Thompson, Laurence (1975). *Chinese Religion*. Encino: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Van Norden, Bryan(2007). *Virtue Ethics and Consequentialism in Early Chinese Philosoph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ber, Max(1964). *The Religion of China*.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Yao Tao-Chung(2000). "Quanzhen." Livia Kohn (ed.). *Daoism Handbook*. Leiden: Brill, pp. 567-593.

Abstract

Rethinking “care” as a religious practice of Daoism in Hong Kong

Eunkang Koh*
Chungmee K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as depicted through the daily practices of Daoism observed in Hong Kong. In Hong Kong, Daoism is a widely-practiced religion. Visiting Daoist temples such as Wongtaisin, Fungyingseenkoon and Chingchongkun is part of the daily life of Hong Kong people. Activities of Hong Kong Daoism put more emphasis on care.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hilosophy of care is directly related to Lüzuwujibaochan, a Daoist canonical text, which is largely used for rituals in the Quanzhen sect of Daoism in Hong Kong. Lüzuwujibaochan contains the teaching of Lüzü, one of the divines in the Quanzhen sect of Daoism. Lüzü's teaching focuses on the proper way a Daoist should practice Daoism. Following Lüzü's teaching, a Daoist should discover her own way to become divine. If she puts in constant effort into building a good character, she will be able to live a happy and healthy life and become divine after her death. Rituals convey Lüzü's teaching to the Daoist priests and other participants singing the canonical text. By worshiping Lüzü, a Daoist is talking to herself about the fundamental goal: living a healthy life and becoming divine by practicing Daoism everyday.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School of Liberal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Department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